

2025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심의결과

- 시각 -

□ 심의일정

[1차] 행정심의 지원신청 부적격자 등 행정심의 결정사유 검토 ~ 2024.11.10.	▶	심의위원 사전 워크숍 심의방식 및 의무사항 등 안내 2024.11.20.	▶	[2차] 전문가 서류 및 토론심의 심의지표에 따른 심의위원 서류검토 및 토론심의 진행 후 개별채점 2024.11.21. ~ 12.23.(세부분야별 상이)	▶	[3차] 전문가 지원금 의결심의 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검토 및 지원금 의결 2024.12.20. ~ 12.30.(세부분야별 상이)
--	---	--	---	--	---	---

□ 심의위원회 명단

※가나다순

장르	심의 분야	심의위원
시각	공예	도화진(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장윤주(독립큐레이터) 정미성(APLD ART PARTNERS 대표) 정용진(국민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최범(문화평론가)
	미디어	고동연(이화여대 겸임교수) 김신재(큐레이터) 오석근(시각예술가) 유원준(영남대학교 미학미술사학과 교수) 이채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입체	강재현(사비나미술관 학예팀장) 차기울(국립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채은영(임시공간 대표) 이경모(월간 미술세계 편집인) 이진실(미술평론가)
	평면A	김인선(스페이스 윌링앤덜링 대표) 안대웅(대구미술관 수집연구팀장) 안소연(미술비평가) 임상빈(성신여대 서양화과 교수) 전효경(리움 큐레이터)
	평면BC	곽영빈(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기혜경(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민병직(독립기획자) 이관훈((사)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디렉터) 이성휘(하이트문화재단 큐레이터)

□ 세부 선정결과

- 지원결정액은 창작지원금과 활동비(정액 3,000,000원) 및 회계검증수수료를 포함한 결정액임.

○ A트랙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1	202503226	강예빈	《STUDIO》 (가제)	19,000,000
2	202500529	곽서영	미러리스 시티 뷰 Mirrorless City View	14,000,000
3	202505830	권회찬	권회찬 개인전 《Cheese!》(가제)	18,000,000
4	202500518	김미현	검은 무지개가 뜬 정원	16,000,000
5	202505358	김상소	김상소 개인전 <누아르(Noir)>	19,000,000
6	202501462	김소연	김소연 개인전 《순공간 Pure-Moment-Space》	17,000,000
7	202504098	김재원	<가져간 것, 가져온 것 Gone and Gained>(가제)	18,000,000
8	202505306	김지민	<Prototype Temple: 우린 쉬게 될 거예요>	18,000,000
9	202501952	김혜원	김혜원 개인전 《A Picturesque Tour》	17,000,000
10	202502140	류희연	포인트 니모	18,000,000
11	202501409	문채민	Mass And Craft	14,000,000
12	202503136	박민영	기획전 《사랑은 이기지 않는다》	19,000,000
13	202500488	박영호	박영호개인전 < 순환적 기억의 순간 >	16,000,000
14	202505379	박재영	박재영 개인전 <Drag and Drop>	14,000,000
15	202503063	박정호	박정호 개인전 <취급 주의: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14,000,000
16	202501652	박효정	박효정 개인전 <self - portrait> (미정)	19,000,000
17	202505076	설고은	설고은 개인전 <Cracks, Ripples, and What Not>	18,000,000
18	202504928	송승준	폴리네이터 (The Pollinator)	18,000,000
19	202504099	양하은	양하, 정선우 2인전 《Longing Lingerig》	19,000,000
20	202504951	어윤지	늦게 도착한 시간을 흔적이라 부를 때	19,000,000
21	202502528	오세라	물꿈집	18,000,000
22	202500497	원소윤	해를 등지고 걷는 모양	15,000,000
23	202506121	유세리	유세리 개인전 : 의도된 우연 (Intended Serendipity)	16,000,000
24	202501594	유예림	네안데르탈 다이닝 테이블 (Neanderthal Dining Table)	18,000,000
25	202500992	유지원	어떻게 그것들과 살 것인가	17,000,000
26	202503228	윤정의	윤정의 개인전 <분열 Split>	18,000,000
27	202502179	윤태균	기획전 《방화주의 리얼리즘: 멜트다운》	15,000,000
28	202500736	은재필	은재필 개인전 < 종이 울리면 >	18,000,000
29	202504884	이미지	이미지 개인전 <그리고 그 후에 남은 것 (가제)>	20,000,000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30	202502418	이보름	의향서들 Letters of Intent	18,000,000
31	202503235	이서윤	이서윤 개인전 <크루통_다시 화가되기>(가제)	17,000,000
32	202502857	이종환	이종환 개인전 <Loggia>(가제)	20,000,000
33	202504554	이지언	Clumsy Seamless (가제) / 어설프게 무결한	20,000,000
34	202505564	장다은	창문 도둑	15,000,000
35	202502833	정지수	어쩌다 슈코브스키는 자코츠키가 되었을까?	18,000,000
36	202505534	조민열	시간의 총위, 흔적의 서사(가제)	19,000,000
37	202505282	조유리	유리 개인전 <범람하는 말들>(미정)	19,000,000
38	202500264	조이솝	조이솝 개인전 VOICI VOICE	19,000,000
39	202505657	천유선	Light goes on	18,000,000
40	202504607	키시앤바질	키시앤바질 개인전 《뒤집었던 책표지를 다시 뒤집었다》	15,000,000
41	202506340	하신희	하신희 개인전 <산조散調 : 산조山晷>(가제)	16,000,000
42	202505069	허세빈	허세빈 개인전 <접혀야 온전한>	12,000,000
43	202501233	홍지영	홍지영 개인전 <유적지를 도는 여자들>	18,000,000

○ B트랙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1	202505506	강민영	SPIRAL	29,000,000
2	202501665	강석근	바람의 기호	28,000,000
3	202501399	강주리	강주리 개인전: 수고스러운 유희(미정)	27,000,000
4	202506468	고보경	이음	24,000,000
5	202504740	기민정	기민정 개인전 <하얀 먹>	22,000,000
6	202502759	김동해	김동해 개인전	23,000,000
7	202504795	김세은	김세은 개인전 <Noun to Verb>(가제)	27,000,000
8	202501871	김실비	베를린 블루	26,000,000
9	202505941	김유빈	Surfing the Suffering	29,000,000
10	202505904	김재유	<Somewhere, Eternal>	23,000,000
11	202504215	문지영	문지영 개인전 <너의 사랑은 너무 무거워>	23,000,000
12	202501243	박문희	into the portal	29,000,000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13	202501825	박미라	문을 만드는 일	27,000,000
14	202502770	박미주	push, pull, breath	29,000,000
15	202502912	박성훈	CHRONOTOPE: The Expansion of Dimension	26,000,000
16	202501066	박용규	육화경	27,000,000
17	202500115	박정혜	박정혜 개인전 <Zettelkasten>	27,000,000
18	202506188	박현정	조건들	27,000,000
19	202505414	변상환	변상환 개인전<지평선 너머 타원의 경계>	28,000,000
20	202500283	서안나	Anna Jung seo 개인전 <기억된 이야기> (가제)	23,000,000
21	202504117	송승은	송승은 개인전 <Planta>	23,000,000
22	202501751	송호은	송민규 개인전	27,000,000
23	202506433	신양희	의존하는, 의존하지 않는	29,000,000
24	202504990	신재민	《패치워크!》(가제)	30,000,000
25	202503668	신정균	신정균 개인전《예언과 시나리오》	22,000,000
26	202502448	안상범	<연못 두뇌>(가제)	20,000,000
27	202505321	양아영	양아영 개인전 <Silly Crush>	24,000,000
28	202503472	양지원	양지원 개인전(가제)	27,000,000
29	202505479	언메이크랩	(가칭)델타 패밀리	30,000,000
30	202504322	유신애	유신애 개인전 <Ghetto Bouquet>	26,000,000
31	202500844	유화수	에코 메트로 펠리스 -2074년 아파트 조형물 연구에 부처-	29,000,000
32	202502995	윤미류	윤미류 개인전 <두 마리 뱀>(가제)	27,000,000
33	202504976	윤지원	윤지원 개인전 - <투명한 이미지>	29,000,000
34	202501992	윤향로	윤향로 개인전	27,000,000
35	202503705	이세정	이세정 개인전 <새겨 놓은 기록>	16,000,000
36	202504186	이수지	이수지 개인전 <(냉무)>(가제)	29,000,000
37	202505735	이수진	이수진 개인전 <폴리포니 클럽: 바람에 피와 살을 입히기>	29,000,000
38	202504580	이승연	이승연 개인전 <신세기 만인도 (萬人圖)> (가제)	29,000,000
39	202502244	이원우	이원우 개인전 <Dreamy Museum>	26,000,000
40	202502750	이윤이	이윤이 개인전 <우리 가운데>(미정)	26,000,000
41	202502701	이재원	이재원 개인전 <자율주행>	26,000,000
42	202504921	이충현	이충현 개인전 《휴먼 스케일》	23,000,000
43	202503876	이태훈	이태훈 개인전 <흠 씨_Free drawing>	28,000,000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44	202500452	임노식	임노식 개인전 <선산>	20,000,000
45	202503124	임서윤	임서윤 개인전 <폴의 기술>	28,000,000
46	202500824	임희재	정원의 뱀	24,000,000
47	202502647	장서영	장서영 개인전	28,000,000
48	202503363	장우주	종의 사파리_나는 정복당했다	28,000,000
49	202504676	장재민	섬 그림	27,000,000
50	202500985	전혜주	전혜주 개인전 <빈곤한 세계>	29,000,000
51	202502443	정정호	정정호 개인전-신 터	27,000,000
52	202506011	정철규	정철규 개인전 <구름이 되었다가, 진주가 되었다가,>	24,000,000
53	202503274	정호연	정호연 개인전	28,000,000
54	202506212	조가연	변화하는	23,000,000
55	202503897	조재영	공중 정원(가제)	29,000,000
56	202505394	추성아	마멀리안 테일	29,000,000
57	202501977	한상아	한상아 개인전 <Black, Flesh, Flash (검정, 살, 섬광)>	27,000,000

○ C트랙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1	202506459	감민경	감민경개인전 <마르지 않는 우물> (가제)	29,000,000
2	202506376	고희승	고희승 개인전 <자리하다 Nesting>	30,000,000
3	202505760	구본아	구본아 개인전 '벽에 쓰는 시'	19,000,000
4	202505475	권순관	권순관	30,000,000
5	202505163	금혜원	금혜원 개인전	29,000,000
6	202504753	김아영	김아영 개인전 (제목 미정)	30,000,000
7	202504544	김옥선	《옥선 헤림 인선》프로젝트◆(미정)	30,000,000
8	202504364	김주리	김주리 개인전	32,000,000
9	202504329	김준	남겨진 잔향 (김준 개인전)	30,000,000
10	202503999	김학량	김학량 개인전 <개인전, 뭐 하지?>	33,000,000
11	202503920	김현주	점령의 감각들	30,000,000
12	202503182	노윤희	로와정 개인전 《나의 일은 мем돌기랍니다》(가제)	32,000,000
13	202502352	문보영	감각과 인식의 경계, 그 너머...	31,000,000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14	202502291	박경률	박경률개인전 <아무도 모른다>(미정)	29,000,000
15	202502227	박세진	박세진 개인전: 합판을 깨지 않고	33,000,000
16	202501929	박소영	산을 쌓고 백일몽을 꾸리라	26,000,000
17	202501623	박정기	박정기 개인전 < 미완성의 프로젝트(An Unfinished Project) >	32,000,000
18	202501327	박지은	Re: 순환의 고리	28,000,000
19	202500982	백정기	백정기 개인전 <Is of>(가제)	24,000,000
20	202500943	안경수	안경수 개인전 <부력표본>	33,000,000
21	202500870	오화진	오화진 개인전 < 뉴러나이제이션 _ Neuronization >	32,000,000
22	202500848	이병호	환상의 빛	25,000,000
23	202500674	이삿별	이삿별 개인전 <기슭의 벚추얼 그린> (미정)	29,000,000
24	202500571	이은실	이은실 개인전 <파고波高>	28,000,000
25	202500516	이재훈	이재훈 개인전 <그 곳 (There)>	32,000,000
26	202500297	정소영	정소영 개인전 <HOT AND COLD>	32,000,000
27	202500126	정수진	아날로그 코딩(가제)/정수진 개인전	33,000,000
28	202500047	정하응	정하응 개인전/< 사이렌, 에이효과A-effect>	20,000,000

□ 심의총평

□ 공예

○ A트랙

- A트랙에서는 전통적인 요소(형태, 색, 표현양식 등)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지원자가 주를 이루는 동시에 공예성과 공예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고 고민하는 기획이 다수 보였습니다. 동시에 “유리” 분야의 지원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순수미술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개념적인 프로젝트, 우리 삶의 편리성을 높이는 프로젝트, 그리고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기획이 있었다는 점 또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심의 시에는 공예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시각예술 전반으로 확장한 관점을 견지하여 공예의 장르적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프로젝트의 가치와 우수성, 계획의 적절성, 기대효과 등 신청자들의 예술적 역량과 향후 발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작품과 기획 방향을 서술하거나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소회를 언급하기 보다는 작업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공예는 미술과 디자인, 전통과 현대라는 사이에서 협착되거나 중첩되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집단 속의 장인이 아닌 공예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접근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각과 극복의지가 현대 공예가의 진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B트랙

- 현재 가장 활발하게 작업하는 예술인들로 높은 역량을 갖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우수한 작가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공예의 방법론을 시도하고 소재 및 방식에 있어 독창성이 있는 작가들이 다수 지원한 것이 인상 깊었으며 작품을 소개하는데 있어서도 개념과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충실하게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으로 재료를 다루는 것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공예 작가들의 노고가 느껴졌습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기존 작업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보였는데 기존 작품이 가진 조형적 측면이 우수하더라도 25년의 작업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대한 확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존 작업의 경향과 완성도,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 하는지, 계획하는 작업 방향과 작품의 완성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A트랙에 대비하여 재료의 크로스오버나 새로운 기술의 시도 등의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현대 공예의 난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접근을 내놓고 미술과 디자인을 포섭하는 제3의 존재로서 공예의 위상을 드러내는 작업들이 보다 많아지기를 바라며, 현장에서 오늘날의 공예 환경을 창조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현대 공예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C트랙

- 안정적으로 작업을 지속하는 작가들 외 전통 공예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도 다수 신청한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예 작가로서 그간의 작업을 지속, 유지, 발전시키면서도 동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론과 소재에 대한 시도와 변화를 꾀하는 작업이 있었던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미 작가로서 완숙한 단계의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해당 분야의 모범이 될 만한 수준의 계획과 다양한 가능성의 제시, 그간의 작업 세계를 규모 있고 완성도 있게 선보이는지 살펴보았으며 단계를 넘은 예술적 확장과 역량을 볼 수 있는 작가로서의 파급효과 및 발표될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미디어

○ A트랙

- A트랙에서는 동시대 직면한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진단하며 극복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시도 및 예술적인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현대사회와 국내의 다양한 이슈들을 예술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았는데 인류세, 기후 위기의 전지구적인 상황, 생태 담론의 확산과 함께 '파국'의 미래, 소수자에 대한 관심, 갈등 관계, 포스트 휴머니즘, 신유물론의 영향 아래의 귀어성과 디아스포라, 탈식민주의를 다루는 작업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생태 담론의 과잉이 한 차례 지나간 후, 지나치게 그에 기대기보다는 자기화 하면서 본인의 연구를 발전시켜가려는 개별적인 노력과 고민이 돋보였습니다. 제안된 프로젝트의 예술성, 독창성, 작품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였으며,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자신의 예술적 성취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과 완성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결과를 위한 사전 조사 작업 또한 충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젝트는 사회적 이슈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성급하게 일반화하여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으며 치열하게 서술된 글과는 달리 예술작품이나 활동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거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한 경우, 기존의 예술적 방법론을 비판 없이 수용한 사례도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높은 경쟁률과 한정된 예산으로 선정규모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음을 현장에서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탈락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각 프로젝트에는 저마다의 미덕과 가치가 내재되어 있으니 이를 토대로 자신의 프로젝트와 방향성, 예술활동을 면밀하게 돌아보고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 B트랙

- 고도로 발달된 미디어 아트의 범주로 인하여 사진에서 시작하여 비디오, 영화, 다큐멘터리, 퍼포먼스, 3D 애니메이션, VR, 프로젝션 맵핑, 인터랙티브 장치와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매체를 활용한 작품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VR, AR, XR, MR, NFT, 메타버스 등 관련 작업이 자취를 감추면서 사변적인 픽션과 게임 엔진을 활용한 작업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물질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장르적인 미술계의 상황과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인류의 위기 속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는 작가들의 고민과 사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과 미디어 아트 모두 적극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작업에 도입하면서 새로운 창작과 제작을 탐구하려는 시도도 많았지만 뛰어난 기술의 구사에도 불구하고 매체를 통한 질문이나 성찰이 다소 평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불어 자연과 인간, 사물의 관계를 재편하는 감각으로서 다양한 감각이 함께 탐구되었으면 합니다. '기술 생태주의'의 부상과 함께 미디어 아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미디어아트의 정의와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확충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B트랙 또한 다른 트랙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의 예술성, 독창성, 작품의 완성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였으며 향후 예술 활동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기획안의 구성 및 완성도, 예술적인 결과물에 이르는 과정이 치밀하게 설계된 제안이 많았습니다. 신청 예술가가 이전에 수행했던 작업들과 연결되는 주제의 기획안들이 많았는데, 그와 더불어 내년의 창작활동 계획이 얼마나 참신한지, 기존 작업과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지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완성도 높은 작품과 활동을 보여준 예술가라 할지라도 과거와의 차별성과 발전을 갖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상과 주제,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제와 방법론을 반복하거나 개인의 세계와 논리에 치우쳐 설득력이 부족한 매체와 기술 실험 사례도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동시대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기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유 없이 작업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체와 기술 활용에 있어 작가의 철학적 고찰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C트랙**

- 미디어분야 지원자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미디어를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온 중견 이상의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반가웠습니다. 해당 트랙에서는 최근에도 작업을 활발하게 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도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체의 특수성을 다른 케이스 또한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C트랙에서는 예술성, 독창성, 완성도, 구체성, 실현가능성 뿐만 아니라 예술계와 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한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예술활동의 가치를 확장시키기 위한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트랙의 특성 상 작업의 연속적인 기획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원자들의 예술활동 경력이 매우 견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될 계획에 대한 완성도와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대체로 높은 수준의 기획력을 보였으나 동일한 주제와 방법론을 반복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거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 **입체**

○ **A트랙**

- 자아와 현실, 개인적인 소소한 경험이나 일상 속 발견에 대한 관찰을 상상력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소수자 이슈, 정체성에 대한 탐구, 환경 문제, 동시대적 미적 담론에 기반한 참신한 창의성을 탐구하는 작업 등 다양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제안이 담겨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전시로 확인하고 싶을 만큼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기획이 눈에 띄었으며, 조각/입체라는 형식적 틀을 염두에 두되 장르적 제약에서 확장되어 영상미디어나 디지털 매체, 음향과 평면적 요소까지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실험적 작업의 지원 신청이 많았습니다.

전통적인 재료에 얽매이지 않고 플라스틱, 금속, 가죽이나 라텍스, 자연 재료 등 비교적 가볍고 다루기 쉬운 재료를 활용하여 텍스처와 형태를 유연하게 실험하는 경향과 작품 제작을 위한 3D 프린터를 활용한 프로젝트 및 건축적 형태, 원뿔, 판넬을 활용한 곡선 형태, 점토를 활용한 비정형 형태 등 조형적으로 유사한 형태들도 보였습니다.

심의 시에는 전시가 연상될 수 있을 만큼 작품의 방향성이 구체적이고 실천력이 분명해 보이는 충실한 제안과 함께 작품의 발전성, 기존 작업과의 연관성, 확장성을 눈여겨보았으며 현학적이기보다는 성실한 구상과 작품성을 엿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수하게 평가하였습니다. 패기있고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훌륭한 작업 계획이 많았으나 지원자에 비해 적은 수가 선정되어야 하는 점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 **B트랙**

- 개인적인 관심사나 경험에서 출발한 작업배경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가 많았으며 종이, 나무, 도자기 등 전통적인 재료와 3D 프린팅, 레이저 커팅 등 현대적인 기술과 결합한 형태가 다수였으며, AI를 활용한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업적 견해를 뚜렷하게 천명하고 향후 작업 방향을 진취적으로 전개해 나갈 역량을 보여주려는 프로젝트, 성장이 확연히 드러나는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주기가 빠르게 변동하는 동시대적 미술환경에서 메시지 전달의 효율성은 물론,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능숙하게 다루어 작업의 형식과 내용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낸 작업을 우수하게 보았으며, 지원신청서 내 기획의도와 전시할 작품 구상, 방향성을 충실히 작성하고 이전 작업과의 연계성, 확장 여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독창성이 결여된 관행적인 접근이나 현실에 안주하여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려는 일부 작가들의 계획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기획자들로서 예술 활동의 가치와 실력으로 보았을 때 많은 지원자가 우수하였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적은 수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C트랙

- C트랙은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전시와 유의미한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 동시에 예술활동의 방향이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았습니다. 본격적인 예술인의 길을 가고 있는 작가들답게 모두 훌륭한 작업적 태도와 계획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현대미술이 지향해야 할 지평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화무쌍한 매체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동시에 후배 작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았습니다.

중견 작가로서의 타성적 업적에 안주하지 않고 안정적인 작업 활동과 실험적인 모색에 더하여 보다 깊이 고민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주목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작업을 이어오면서 작품에 대한 모색이 담긴 진정성 있는 기획안,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절성 등 섬세하게 계획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프로젝트, 동시대 미술의 방향성에서 유의미한 태도와 확장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가들을 우수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 그간의 작품 활동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작업을 선보이면서 향후 한국현대미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과 성과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 평면

○ A트랙

- 작업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확실하고 동시대성에 대한 함의가 분명한 프로젝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있는 예술인의 경우 몇 해간 반복된 작업을 보여주는 경향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작가 개인의 경험이나 조형적 관심사를 방법론적으로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가장 컸다고 느껴집니다. 사회적인 문제와 작가 개인이나 작업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그보다 적은 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AI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새로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획전보다는 개인전의 신청 비중이 높았는데 어려운 시기 작가 개인의 활동이 증가한다는 점은 미술계에 고무적인 일이며 응원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기획자의 참신한 프로젝트 역시 미술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와는 별개로 각자 분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진 창작자라는 위치에서 창의적인 태도와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련의 노력들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창작활동의 방향성과 실험을 도모하려는 시도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다만 작품의 개념은 좋으나 조형적인 완성도가 아쉬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스크린에서 넘어온 이미지들에 관한 프로젝트들도 눈에 띄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을 자신의 예술 활동이나 수행으로 옮겨낼 때에는 그 자체로 다른 이미지로서의 효용성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구체적인 결정을 뭉뚱그려 표현한 경우도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술인으로서 자신의 명백한 이유와 시각 언어를 찾아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관람자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술계에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작업을 위치시킬 수 있는지 비평적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나갈 바랍니다. 정보로서의 이미지가 넘쳐나는 현시대에서 이미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보기를 제안해 봅니다.

어떤 주제의 선택이 구상의 좋고 나쁨을 가르는 기준은 될 수 없지만 기존 작업에서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어떤 작업을 기획했는지 기대 효과가 구체적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지원서는 대부분 충실하였으며 기획은 참신한 편이었습니다. 작가 개인의 프로젝트가 자족적이라 할지라도 미술 담론에 새롭게 기여하고 공공 지원으로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모색을 통해 예술인으로서 창작활동을 지속해 나가려는 노력과 역량, 실현 가능한 실험을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실천성 등을 심의 시 고려하였습니다.

예술인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신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기술의 사용 여부를 떠나 본인 작업에 대한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는 것은 예술인으로서 활동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량이므로 AI 등의 사용이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는 점도 특기해둡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많아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지원여부를 떠나 나름의 체계

속에서 지속적인 활동과 연구를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B트랙**

- 조형적 측면에서는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아 동시대 미술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과 주변사에서 출발하는 주제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트렌드라 할 수 있는 여성, 자연, 공존, 생태 등의 문제를 다루는 작업들도 다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관심과 지향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회, 인문학적인 이슈라 할 수 있는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생태, 환경 문제, 특히 식물에 대한 관심이나 동물 등 비인간적 존재들과의 공존을 다룬 제안들이 꽤 있었으며, AI를 포함한 디지털 이미지나 테크놀로지와의 관계를 다룬 제안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어 시대와 무관하지 않은 작가들의 작업 경향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특유의 독특하고 구체적인 시선, 개념적인 감각과 연동된 작업 모색으로 새로운 조형성을 실험하는 작업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어 고무적이었으며, 평면 자체에 대한 것들은 물론 이를 확장하여 소재, 재료, 매체, 기술적인 실험들도 지속적으로 작가들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동양화 작가들의 경우는 여전히 전통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다루는 매체의 현대화, 동시대성 획득에 고민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작품의 주제성에 대해서는 취약한 면모가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불어, 전시 주제와 담론 작성의 차원에서 '동양화' 전통이 자유도가 거의 없거나 동시대 미술과의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었다면 역으로 '서양화'의 경우는 유행하는 담론에 매몰되어 상대적 차원에서의 자유도가 희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창작의 시기로 보자면 현대미술의 흐름에서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기존 창작언어의 재생과 반복, 엄청나게 소비되는 정보와 빠른 네트워크의 SNS 활동을 통해 예술가인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지만, 반면에 자신의 창작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원자들은 다양한 창작의 유형을 갖고 있었고, 개인의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서사 그리고 자신의 내면이 외연으로 확장되는 면모까지 보여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치열한 고민과 실험과정을 거친 작업과는 달리 기존의 미술 사조에 편승하는 아카데미한 작업 유형도 다소 있어 편차가 느껴졌습니다. 지원자 중에는 '성숙'의 과정에 진입한 이들도 있었고, 팬데믹과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고 새출발을 하거나, 주제나 형식 차원에서 여전히 '모색' 중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성숙함을 기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본인들의 작업이 2025년 '평면'이라는 장(場)에서 갖는 역사적 함의가 무엇인지, 메타적 사유가 부재하여 개인적인 고민으로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향하고 있는 바의 독특성, 변별성, 실험성 못지않게 이들 문제의식의 깊이, 구체성, 고유의 작업세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는가의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 테크놀로지나 재료 확장, 매체 실험 등과 관련한 제안들의 경우 그 활용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작가적 문제의식을 통한 완성도 있는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지 고려하였습니다. 시대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자신만의 어법과 창의성에 주목하여, 지금 현재보다는 보다 열려있고 다음의 창작 행보를 가늠케 하는 작업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C트랙**

- 충분한 작가 활동과 역량, 완성도를 갖춘 프로젝트의 신청이 많았습니다. 우리 미술계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문제의식들이 일련의 특징적이고 공통적인 흐름으로 드러났다기 보다는 분단, 노동, 여성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오랜 문제의식들을 이전과는 다른 조형적 표현, 시도들로 담아내려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시대적, 사회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생태,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들도 꾸준히 자리하고 있었으며 기법, 물성, 매체와 관련한 제안들도 있어 이러한 주제들이 작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전시 공간구성이나 작업의 세부적인 가시화 방식에 대한 작가들의 적극적인 고민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획과 전시 형성에 있어 작가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양화와 동양화의 경향이 다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판화, 사진, 전시기획에 대한 신청도 있었습니다. 서양화의 경우는 동시대 미술의 경향을 반영하여, 인류세로 지칭되는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 이후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작업이 많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스트 인터넷 시대에 회화의 존재이유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다양한 매체실험과 소통방식에 대한 고민, 재현 방식의 실험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양화가 주제적인 측면과 디지털 시대에서의 아날로그 회화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고 있다면, 동양화는 매체가 가진 특징을 동시대 조형언어로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술인으로서 '일가(一家)'를 이룬 경우, 본인의 작업이 주제나 소재만이 교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이러한 맹점을 적확하게 짚어주는 '비평'을 알아보고 이에 스스로를 노출시킬 용기가 있는지를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이러한 문제는 향후 꼼꼼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C트랙은 국내 미술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창작의 세계가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성이 강하고 다년간 자신의 창작에 주체적인 자각을 통해 거쳐 온 과정이 축적되어 다양한 역량으로 창작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작가로서의 역량과 제안의 우수성은 물론 작업 내용이나 매체 연구 및 기법이 아닌 작업의 과정과 결과가 하나로 드러나거나,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작업 세계가 폭 넓게 확장될 수 있는지, 작업의 성과와 우리 미술계의 발전을 위하여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효과나 영향력,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눈여겨보고자 하였습니다.